

김소월의 설화 관련 시를 통해 본 인문학으로서의 문학교육 탐색 — 〈산유화〉, 〈초혼〉, 〈접동새〉를 중심으로

정소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제1저자, 교신저자)

박지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공동저자)

황예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공동저자)

이한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공동저자)

- I. 서론
- II. 향량 설화와 〈산유화〉 — 이웃으로서의 역할
- III. 석화(石化) 설화와 〈초혼〉 — 인간의 상상력과 감성의 힘
- IV. 접동새 설화와 〈접동새〉 — 함께 슬퍼하고 오래 기억하기
- V. 결론

I. 서론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에 인간 정체성에 대한 해명과 존엄의 문제는 더 부각되고 있다. AI 로봇이 그간 사람들이 하던 일들의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 있다는 미래의 전망은 기대감 못지않게 직업을 잃게 되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2년 넘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의 세계 정국은 인간의 잘못을 꾸짖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의 결과로 사태를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인본주의라는 단어가 인간중심주의라는 부정적 용어로 인식되게 하고, 인간은 어디까지 존엄하며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넘어선 다음 시대, 곧 포스트 휴머니즘시대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대한 탐색이 과학이나 기계문명 등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 더 골몰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일까.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코딩이나 데이터 기반 교육, 디지털 교과서나 AI 활용 수업 등 과학과 기계, 기술 중심으로의 변화가 교육의 장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마치 인본주의에 대한 반성은 곧

인간이 겸허하고 잠잠히 그 목소리를 줄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만큼 포스트 휴머니즘의 시대는 과학과 기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이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코로나 상황은 전 세계가 고통받게 한 인간의 책임을 묻고 있고, 인간의 한계와 잘못에 대한 준엄한 자연의 꾸짖음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디지털 사회는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해명을 고유의 영역으로 삼는 인문학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간의 전적인 책임을 절감하며 처참히 절망하고 있어야 할까. 문학교육, 특히 오랜 시간동안 인간의 행적을 다루어온 고전문학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김종철(2018)에서는 “현대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인문학적 과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교과 영역으로서의 정당성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정희(2015)에서는 이를 고전문학의 동시대성으로 강조하였다.

근대 이후에 문학의 개념은 협소해졌지만, 문학이 인문학으로서 인간성에 대해 탐구하는 영역임이 부정된 적은 없었다. 문학교육은 인간다움을 체험하는 인간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인간학, 인문학이라는 강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윤여탁, 2022). 그렇다면 문학교육 역시 인간성에 대한 탐구, 특히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향을 향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물론 문학교육은 항상 이렇게 해왔고, 인간성 회복을 중요시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국어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이 기능과 도구로서의 성격에 치우쳐진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알아야 하고, 갈래적 특성 그 자체를 공부해야 하며, 주제나 제재를 찾아내도록 훈련하는 것 등은 인간성 회복, 인간 정체성의 해명으로까지 나아가기는 힘들다. 문학은 인문학의 핵심으로서 인간성을 탐구하는 영역임에도, 선행연구들의 지적과 같이 문학이 그간 갖추어온 수사학적 표면들을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해명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분명히 해야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 역할과 존엄에 대해 흔들림 없이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김소월(1902-1934)의 시를 사례로 들어 이에 대한 접근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김소월의 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인간 문제,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풀어가야 할 지점들을 풍부히 다루고 있다. 주지하듯 시는, 특히 서정시는 세계를 자아화한 것이지만, 보편적 자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노래이지만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김소월의 시는 이러한 서정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오랜 시간 문학사의 일부로 지속되어 온 기층민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할 시들은 설화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견디고 전해진 이야기를 김소월은 여러 시에서 수용하여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제로 김소월은 어린 시절 숙모 계희영으로부터 많은 우리 설화를 들었고, 밤마다 이야기 듣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계희영, 1969: 60-61).

또한 김소월의 시는 2015 개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윤동주, 백석의 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윤동주는 7개 출판사에서 〈쉽게 씌어진 시〉와 〈별헤는 밤〉의 2개 작품이, 백석은 5개 출판사에서 〈국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모닥불〉, 〈여우난곶죽〉의 4개 작품이 실렸다. 김소월은 6개 출판사에서 〈산유화〉, 〈초혼〉, 〈접동새〉, 〈가는 길〉, 〈진달래꽃〉의 5개 작품이 본문 제재로 수록되어 있다. 작품 수까지 고려하면 작품이 가장 많이 실린 시인이 김소월이다.

본고에서 구체적 사례로 살펴볼 작품은 구비설화와 관련된 〈산유화〉, 〈초혼〉, 〈접동새〉이다. 김소월의 시가 전반적으로 전통과의 연관성이 높고, 그래서 현재 『문학』 교과서¹⁾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학사 단원에서 관

1) 본문에서 사용되는 『문학』 교과서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출판사 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창비(최원식·박종호·곽기영·박수연·박창현·서경원 외, 2019), 천재(정)(정호웅·김수학·송지언·우완·윤대석·정지민, 2019), 해냄에듀(조정래·정호승·곽재구·박상률·유

런 성취 기준(교육부, 2015) 하에서 다루지고 있다(〈표 1〉 참고).

〈표 1〉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의 김소월 시 〈산유화〉, 〈접동새〉, 〈초혼〉 관련 단원의 성취기준

	시	출판사	단원명	성취기준
1	〈산유화〉	창비	대단원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소단원2.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천재(정)	대단원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소단원1.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12문학 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2	〈초혼〉	미래엔	대단원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소단원4. 근현대 문학	(12문학03-02)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3)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12문학03-04)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3	〈접동새〉	해냄	대단원3. 한국 문학, 어떻게 이해할까 중단원1.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소단원2. 접동새	(12문학03-0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설화와 관련해 직접 학습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접동새〉 뿐이고, 이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도 김소월의 시가 가진 전통성에 주목해왔으나(김대행, 1983; 노철, 2019; 이동순, 2007; 하재연, 2016) 설화와의 관련성에 주목한 것은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과서에서 주목하는 김소월 시 교육의 양상을 검토하고, 현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문학으로서의 시 교육에 초점에 두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교과서를 검토하는 것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취

문선·노철 외, 2019), 미래엔(방민호·박현수·황재문·정우상·조성임·윤나라, 2019)

기준에 따른 체제 속에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화와의 관련성에 주목할 때에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접근될 수도 있는지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산유화〉, 〈초혼〉, 〈접동새〉는 모두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접동새〉의 경우 누이가 죽어 혼이 접동새가 되었고, 〈산유화〉에서 꽃이 진다는 것도 생명을 다한 상태이며, 〈초혼〉은 제목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다. 설화의 세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김소월의 세 편의 시가 모두 인간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또 관련된 접동새 설화(〈접동새〉), 망부석 설화(〈초혼〉), 향랑 설화(〈산유화〉)도 죽음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룬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연일 사망자수를 접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에도 시의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인문학으로서 재해석되어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포스트 휴머니즘 사회를 보는 시각을 확보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회복하는 문학교육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논의순서는 설화와의 관련성이 가장 뚜렷이 인식되어온 〈접동새〉를 마지막으로, 약간의 관련성이 인식된 〈초혼〉을 중간에, 그리고 그 관련성이 가장 적게 인식된 〈산유화〉를 먼저 다루고자 한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뒤에 그 검토를 바탕으로 설화와의 긴밀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기반한 시 읽기가 가지는 의미를 제안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II. 향랑 설화와 〈산유화〉 — 이웃으로서의 역할

1. 『문학』 교과서에서의 〈산유화〉 검토

〈산유화〉를 다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는 2종으로 해당 성취기준은 앞에서 제시하였고,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산유화〉를 다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창비, 천재(정))의 학습활동

〔창비 『문학』 교과서〕

1. 이 작품을 자연스럽게 끊어 낭송해 보자.
2. 이 작품의 반복되는 시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꽃’의 속성을 말해 보자.
3. 다음 글을 참고하여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시구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4. 다음은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 「청산별곡」의 일부이다. 작품을 읽고, 「산유화」와 비교하여 운율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청산별곡」 제 1, 2연)

「산유화」는 평범한 자연 현상에 담긴 자연의 질서를 보여 주면서 그 질서 속에 놓인 존재가 지니게 되는 근원적인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5. 다음 작품들을 참고하여 ‘꽃’을 소재로 한 시를 한 편 써 보자.

천재(정) 『문학』 교과서〕

1. 이 시를 천천히 소리 내어 읽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보자.
2. 이 시의 시상 전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연:
2연: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꽃
3연:
4연:
3. 모둠원들과 함께 이 시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1) 이 시에는 같은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그 종결 어미에서 연상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2) 2연의 행 배열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자.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3) 다음은 이 시에 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 시의 형식상 특징에 따라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교과서 모두 공통적으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구절에 주목하고 있다. 이 구절은 연구사에서 인간 정서의 본질, 곧 존재의 근원적 고

독을 파악한 중요한 대목으로도 해석되고 있어서²⁾ 연구사적 성과가 교육현장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교과서 모두 형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시가 산문과 다른 지점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창비 교과서’에서는 갈래별 전개라는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 4번에서 고려속요와의 율격을 비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율격이 바로 앞의 3번에서 탐구한 인간 근원의 고독감이라는 정서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과편화된 항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 3번 내에서만 본다고 해도, 인간이 자연의 질서 속에 놓일 때에 조화나 만족이 아니라 ‘저만치’라는 소외감, ‘혼자서’라는 고독감을 느끼는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과연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고, 소외와 고독을 느끼는 인간은 자연을 향해 과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의문이 발생하나 다루어지지 않는다. 또 이런 꽃을 좋아하는 새의 존재에 대해서도 조명되지 않고 있다.

‘천재(정) 교과서’에서는 시가 가진 형식적 미학과 내용의 긴밀함에 대해 다루었다. <표 2>에서 보듯이 3. (1)에서는 반복되는 종결어미(‘~네’)가 가지는 화자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창비 교과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바인 자연의 질서, 어기거나 변하지 않는 자연의 동일성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3. (2)에서는 ‘창비 교과서’와 같이 저만치 혼자 있는 화자의 태도를 다루면서도 학습자가 율격이 가진 형식과 시가 가진 느낌의 차이를 묻고 있다. 시 전체가 4행씩 4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2연만 2행으로 재배열해서 시의 느낌이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형식이 바뀌면 느낌도 바뀌므

2) 이 구절에 주목한 논의는 많다. 고독이라고도 보지만, 저절로나 스스로로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미 해석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비교하며 진행한 대표적 논의로 권영민(1999), 최미숙(2010)을 들 수 있다.

로 성취 기준에 따라 이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에서 제안한 것처럼 2행시로 바꾸게 되면 거대한 산의 느낌이 감소하고 그만큼 꽃이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느낌도 줄어든다. 그래서 시인은 행갈이를 여러 번 두어 반복법을 통해 거대한 산을 가장 짧은 행으로 만들어 산에 집중하게 하고, 그 뒤에 야 꽃의 소외감과 고독감이 더 부각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제2연만을 떼내어 볼 것은 아니다. 전체가 고전시와 같이 정형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 시인데, 제2연에만 주목해서 시 전체를 이해할 것은 아니다. ‘정형성이 깨트려진’ 제2연의 재배열에 따른 시 전문(全文)의 분위기도 어떻게 바뀌는지를 고려한 답을 요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두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반복되는 정형적 운율감이고, 내용적으로는 꽃이 제시하는 소외감과 고독감이다. 그런데 이 둘은 교과서의 학습활동 속에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모순된 관계에 있다. 전통에 기반한 시인으로, 그래서 김소월 생전 당시에도 ‘민요시인’으로 칭해지기도 한 시인이 보여주는 이 시의 고전적 율격감과, 이러한 형식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 고독하다는 정서라는 것은 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나 질서를 반복적 율격감으로 드러내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자연 앞에 인간은 고독하다는 의식은 지극히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소월은 고전의 형식 속에 근대의 정서를 담아냈다고 해야 할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형식과 내용이 긴밀하다는 것이 교과서의 성취 기준인 바,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두 교과서 모두 교사용지도서에서 이 시를 ‘전통적’이라고 규정하지만 자세한 해명이 없이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따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산유화〉가 가진 전통성에 대한 해명을 〈산유화〉라는 노래를 부르고 죽었다는 향량 설화와 관련해 살펴보고, 이러한 작품 분석에 기반하여 교수학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향랑 설화에 기반한 〈산유화〉의 해석과 교수학습에의 적용

두 교과서에서는 모두 향랑 설화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연구사적으로도 김소월의 〈산유화〉와 향랑 설화의 상관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향랑 이야기와 〈산유화〉라는 노래는 연원이 길고 많은 기록이 있지만, 이를 김소월이 수용한 점에 주목한 것은 조지훈(1996: 147-154)³⁾과 유종국(1996)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장 이른 시기에 이 점을 포착한 것은 조지훈으로 “또 하나 유명한 민요시-김소월의 〈산유화〉는 글자 그대로 산화(山花)의 범칭, 고가(古歌) 산유화(山有花)의 전설과 애조로운 가락의 영상이 그의 심금에 합일된 것이리라. … 현대의 산유화(山有花歌)다.”(조지훈, 1996: 154)고 한 바 있다. 여기서 ‘산유화의 전설’은 조지훈이 글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녀(怨女) 향랑전설’, 곧 향랑 설화를 일컫는다. 이후 유종국(1996)에서는 정효구(1988)에서 지적한 3인칭 화자의 서사적 태도와, 김소월의 다른 시에서 잘 보이는 이별의 정한이 〈산유화〉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향랑의 이야기에 대한 간접 체험을 시로 형상화시켰다고 보았다. 〈산유화〉라는 민요의 통시적 양상과 여러 계열을 검토한 정한기(2009)에 의하면 이별의 슬픔은 향랑이 부른 〈산유화〉가 아니라 백제노래와 관련된 민요 〈산유화〉와 더 가깝다.

〈산유화〉라는 노래는 김소월 이전에도 민요에서 볼 수 있는 바로서, 백제노래에 기반한 계열과 향랑 설화 속에 전해지는 노래의 두 가지가 있다(정한기, 2009). 본고는 향랑이 지었다고 하는 노래 〈산유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릴 때 설화를 많이 듣고 기억한 김소월의 이 시에서도 구체적 배경이 된다고 본다. 향랑 설화는 조구상(1645-1712) 이래로 많은 문인들에 의해 기록되고 향랑이 지어불렀다는 〈산유화〉도 재창작되는데, 정선, 김창흡, 권두경, 신유한, 이안중, 이노원, 이우신, 이유원, 이학규, 이광정, 최수철, 최성대, 이

3) 1948년 3월 25일 《高大新聞》의 「山有花考-민요 ‘메나리’에 대하여」.

덕무, 이하곤, 김민택, 윤상소, 이옥, 장유, 장지연, 최영년 등 17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용되었다. 이외에도 <숙종실록>, <삼한습유>(1814), <증보문헌비고>(1907) 등에서도 보인다.⁴⁾ 이렇게 문헌설화나 한시, 전(傳)의 형태로, 그리고 <녀족독본>(1908)과 같은 근대의 읽기 자료에까지 게재될 정도로 많은 기록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록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에 기반해 향랑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랑은 남편의 괴롭힘을 피해 친정에 왔으나 숙부가 개가를 하거나 원래의 시택으로 돌아가기를 종용하자 낙동강에 투신했는데, 바로 그 전에 만난 나물개는 소녀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노래 <산유화>를 전해주었다. 향랑의 노래를 수용한 문인들은 4행으로 된 7언 절구나, 시경과 같이 4음으로 된 고시 등 다양한 한시를 남겼다. 한시 형식을 고려한다면 김소월의 <산유화>가 4행 4언 구성을 취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⁵⁾ 유사한 구절이나 구조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이안중(1752-1791)은 향랑이 부른 노래를 “山有花/ 我無家/ 我無家/ 不如花// 山有花/ 桃與李花/ 桃李雖相雜/ 桃樹不開李花// (산에는 꽃이 있네/ 나는 집이 없네/ 나는 집이 없으니/ 꽃만 못하네// 산에는 꽃이 있네/ 복숭아꽃 오얏꽃/ 두 꽃이 비록 섞였어도/ 복숭아나무에서 오얏꽃이 피지 않네)”라고 기록하였다(서신혜, 2004: 48). 현대시의 구조로 이 시를 보면 4행씩 2연 구성으로, 1연은 3음절로만 진행되다가 2연은 3음절에서 시작되어 행이 거듭될수록 글자수가 늘어 충시(層詩)가 되었다. 각 연의 시작에는 “山有花(산에는 꽃 피네)”가 반복해서 나오는 점, 그리고 제2연의 충시 형태가 김소월 시의

4) 이하 향랑 설화와 관련 한시는 서신혜(2004)에서 인용한다. 이외에도 1920~30년대에 향랑설화와 민요 <산유화>에 대한 글은 여러 문헌이나 《삼천리》, 《별건곤》, 《신홍》 등의 잡지 매체들에도 지속적으로 실렸는데, 여기서는 김소월의 시집이 나온 1925년 이전의 기록까지만 소개한다.

5) 김소월은 국내외 한시를 다수 번역하되 자기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창작에 가깝게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소연(2017) 참고.

제2연의 구조와 유사하다.

최수철(1683-1712)은 5언 고시의 서사시로 향량 이야기를 담았는데, 마지막 2행에 자신의 슬픔을 말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시구를 썼다. “唯有松柏林/ 蕭瑟悲風起/ 寂寞哀鳥吟(오직 소나무와 잣나무 숲뿐/ 쓸쓸하고 슬픈 바람 일고/ 적막 속에 슬피 새 우네)” 김소월의 시에서 볼 수 있는 바, 거대한 산에 작은 새가 우는 장면은 최수철의 이 한시 부분에서의 장면과 심상이 유사하다.

최성대(1691-1761)도 5언 고시로 향량의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山花春自落(산꽃이 봄에 피었다 지네)”라는 구가 있다(서신혜, 2004: 96). 김소월은 제1연에서 산에 꽃이 핀다고 하고, 제4연에서 산에 꽃이 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의 변화의 핵심이 최성대의 이 한 구에 들어 있다. 최성대는 일회적인 향량 고사의 실제 시간적 배경인 봄에 주목했으나 김소월은 이러한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속되고 있는 인간사회의 문제임을 ‘갈 봄 여름 없이’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향량이 나물개는 소녀에게 가르쳐주었다는 〈산유화〉는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한 조구상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天何高遠/ 地何曠邈/ 天地雖大/ 一身靡託/ 寧投江水/ 葬於魚腹(서신혜, 2004: 29) (하늘은 어찌 높고 멀며/ 땅은 어찌 넓고 아득할까/ 천지가 비록 커도/ 한 몸 맡길 데 없으니/ 어찌 강물에 뛰어들어/ 물고기 뱃속에 장사지내지 않으리)” 앞에서 이안중이 기록한 향량의 노래와 이 향량의 노래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의탁할 곳 없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은 동일하다. 하늘 아래 어떤 공간도 향량에게는 몸 뉘일 곳이 없다. 원래의 가족이든, 시가(姪家)이든 거할 곳이 없는 외로운 존재라는 점에서 강물에 투신을 선택하게 된 점은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향량의 고독이 과연 근대인이 느끼는 고독과 같을까.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절망감. 세상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할 곳은 없는 존재가 느끼는 고독감이다. 그러나 이 고독감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는다. 이 고독한 향량에게 그 심정을 고스란히 들어준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하에 퍼지게 한 중요한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랑이 죽기 전 만난 한 소녀는 이 향랑의 이야기를 들어준 존재이자, 향랑이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존재이다. 이름모를 소녀,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는 그저 나물캐는 평범한 소녀는 마침 거기에 있었고, 비록 향랑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었지만 향랑의 심정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향랑의 심정이 담긴 노래와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역에 퍼질 수 있는 최초의 전달자가 되었다. 김소월이 ‘산에 사는 작은 새’에 주목한 것은 향랑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록 새와 꽃은 동질적 존재는 아니지만 서로의 곁에 마침 있으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향랑은 아무도 없다고 여겨 절망했지만, 향랑의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녀는 새와 같이 향랑의 처지를 공감하고 노래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었다.

이 소녀에 주목하여 한시화한 경우는 많지 않다. 전술한 것처럼 최수철의 시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김소월은 이러한 대목에 포착하여 모두가 주목하는 제2연의 고독감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제3연의 ‘작은 새’로 시상을 옮겨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4연 구성은 한시의 4단 구성과 같이 기-승-전-결의 흐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한시의 전구(轉句)의 역할을 김소월의 시 제3연이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이다.

‘천재(정) 교과서(77쪽)’에서는 꽃은 이런 새에게도 무심하다고 한 한계전(2008)의 시선과, 욕망의 좌절이라고 본 오성호(2006)의 관점을 수용하였으나, 제4연의 꽃이 지는 것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더라도 이를 좋아하는 새가 있기 때문이다. 꽃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새가 있기 때문에 꽃은 평화로이 질 수 있다. 필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자연의 이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새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⁶⁾ 성과를 중시하는 효용적 관점과 결과에만 연연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향랑의 자살

6) 진가연(2021: 24-30)에서 이 새의 존재를 살면서 고독을 달래주는 존재가 보고 있어서 주목된다.

을 막을 수 없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향량의 노래와 이야기를 전한 소녀는 문학의 효용과 역할을 최대한 보여준다. 꽃은 말을 못하지만 새는 울음으로 소리를 내서 전해줄 수 있다. 시인은 대신 울음을 울어주는 사람이라고도 하듯이, 향량의 이야기를 들어준 소녀, 그리고 이 오래 전해진 이야기를 시로 말한 김소월은 인간 문제가 안고 있는 절망과 고독을 전하는 문학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량의 이야기는 개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겪는 타자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까지 이 땅에 살았던 무수한 여성의 이야기이고, 김소월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이다. 억압된 개인이 경험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 해방의 부분이다. 향량이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것을 들은 이 소녀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와 노래를 전할 수 있는 존재였다. 김소월의 시에서 저만치 혼자 핀 꽃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저만치’는 거리감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라는 상태를 말해줄 수도 있고(김용직, 1974: 155), ‘저만큼’이라는 정도를 말할 수도 있다. 꽃이 저렇게까지, 저만큼이나 외로운 것을 새는 포착하고 알아주고 있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새의 시선으로 타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그 고독감을 들어줄 수 있는 새의 역할을 김소월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 파편화된 개인으로 고독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 각각에 대해 새와 같은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고, 더 나아가 타자들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김소월은 수 세기 동안 향량에 대해 기록한 한시들에서 가느다란 줄기이지만 새의 존재를 이어가고 있고, 시를 통해 나뭇개는 이름모를 소녀, 그리고 작은 새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왜 한시 절구와 같은 4행일까, 왜 한시 기-승-전-결과 같은 4연 구조일까, 왜 제2연은 점층적일까, 왜 제1연과 제4연은 반복될까 등의 의문들은 향량의 노래와 이야기를 수용한 수세기의 기록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들임을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양식의 수용은 향량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듯이 아직도 계속되는 반

복적 문제들임을 형식으로 말한다.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반복 속에서 이를 소리내어 읊어줄 수 있는 새,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대신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상의 흐름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최근 출간된 김훈의 단편소설 〈저만치 혼자서〉도 〈산유화〉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만치 혼자서』(김훈, 2022)는 7편의 단편소설 중 그 대표작품으로 〈저만치 혼자서〉를 서명(書名)으로 삼았는데,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은 김소월의 시 〈산유화〉 중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구절에서 빌려왔다.”고 밝히고 있다(김훈, 2022: 214). 북자켓에는 “나는 한 사람의 이웃으로 이 글을 썼다”고 소설집 표지를 장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설의 내용도 사람들의 죽음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양신부가 임종을 앞둔 이들을 늘 돌보며 타인의 죽음 앞에서의 외로움과 생명의 힘을 전하는 것이다.⁷⁾ 김훈(2022)에서 향량 설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량의 죽음을 이웃으로 지켜본 나물개는 소녀의 역할과 같이 꽃이 지는 곁을 지키는 작은 새의 존재를 인식하고 〈산유화〉의 세계를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향량설화에 기반하여 이 시를 읽게 되면 근대인의 고독과 소외감을 확인하고 절망적으로 끝내는 시가 아니라 작은 새로서의 우리의 할 일과 희망을 알려주는 시가 된다. 우리의 존재와 역할을 알려주는 인문학의 사명을 지속해오고 있는 시의 중요한 측면을 알 수 있고, 그 역할을 최대치로 하고 있는 시로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소월이 왜 전통을 수용하며 어떻게 전통을 이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교과서가 가장 많은 시를 실은 시인인가를 구호나 이론이 아니라 시 읽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7) 김훈(2022: 258-259)의 ‘군말’에서도 이를 밝히고 있다.

III. 석화(石化) 설화와 <초혼>—인간의 상상력과 감성의 힘

1. 『문학』 교과서에서의 <초혼> 검토

이승원(2019: 38)에서는 김소월의 <초혼>이 당시 독자들에게 익숙한 망부석 설화를 차용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읽고 있는 ‘미래엔 교과서의 지도서’(방민호·박현수·황재문·정우상·조성임·윤나라, 2020: 227)에서도 ‘작품 설명의 취지’로 망부석 설화의 활용을 언급하고 있어서 <초혼>이 망부석 설화와 관련됨을 인식하고 있다. ‘미래엔 교과서’에서 <초혼>은 문학사 단원인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 ‘근현대 문학’에 실려 있다. 성취 기준 역시 <표 1>에서 보았듯이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 갈래의 전개, 시대 반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문학』 교과서(미래엔)에 나타난 김소월의 시 <초혼>의 학습활동

1. <초혼>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 보자.
- (2)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3) 밑줄 친 시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2. <초혼>의 문학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요소가 두드러진 부분을 내용과 형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 (2) 다음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이 당대 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김소월의 <초혼>은 <옛 님을 따라가다가 꿈 깨어 탄식함이라>라는 시를 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작 전의 작품은 ‘옛 님’이라는 한 여자에 대한 시로서, 시인의 개인적이고도 특수한 체험에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개작을 통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모두 삭제되자, 구체적인 ‘옛 님’은 보편적인 ‘그대’로 한 단계 승화되었고, 더욱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게 되었다.”

3. 다음은 〈초혼〉과 같은 시대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시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한용운, 〈님의 침묵〉 전문”

- (1) 이 작품에서 ‘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말해 보자.
- (2)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님’을 대하는 태도를 〈초혼〉의 시적 화자가 ‘그대’를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 보자.

1번 문항의 경우, 특히 (3)항은 이 작품의 핵심 정서로 깊은 슬픔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슬픔은 비단 근현대시로서의 특징에 한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이 2번 문항 (1)로 이어지고 있다. 곧, 전통적 요소로서 내용적 측면은 바로 제5연에서 망부석 설화를 담고 있음을 교사용 지도서에서 모범답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방민호 외, 2020: 229). 망부석 설화라는 전통적 정서가 근현대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문학사적 계승과 지속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2번 문항 (1)은 형식적으로 3음보를 염두하고 있어서 〈산유화〉나 〈접동새〉에서와 같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전통적 요소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더 깊은 인간의 문제로 들어가기보다 형식적 차원에서 전통과의 유사성을 겉으로만 확인하고 말 뿐이다. 물론 깊은 슬픔이라는 정서와 관련하여, 2번 문항 (2)에서 개인의 정서를 보편적 정서로 승화시켜 잃어버린 입을 잃어버린 조국으로 확장시키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3번 문항에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비교하는 활동에까지 나아가고는 있다. 특히 개작을 통한 보편성의 확장은 김소월의 시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 나아가 인간 삶 일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2번 문항에서 관련을 맺어둔 망부석 설화는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분명 전통의 정서라는 깊은 슬픔을 말하고자 꺼낸 것이 망부석 설화인데, 망부석 설화의 내용은 무엇인지조차 교과서에서 직접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문학사적 의의는 형식적 유사성이나 특정 설화의 차용이라는

외형이나 단순한 유사성에 있지는 않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지속되는 인간의 문제를 문학이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다루고 있다는 것에 더 본질적인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2번 (1)항에서 꺼낸 전통과의 지속이 (2)항에서는 개작 전의 작품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1)이 없어도 보편적 정서로의 승화는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1)과 (2)의 다리를 놓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망부석 설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느끼는 깊은 슬픔을 전통에서 현대로, 개인에서 보편의 문제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망부석 설화의 정체가 해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2번 문항 (2)에서는 개작을 통한 변화가 개인적 사건을 삭제함으로써 보편성을 얻었다고 하였지만,⁸⁾ 두 시의 차이는 개인적 사건의 삭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보편적 이야기인 ‘석화(石化)’, 곧 돌이 되는 설화를 차용한 것이 더욱 큰 변화이다. 돌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야기 화소(話素)로서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것이다. 최근 출간된 신동훈(2021)에 의하면 대부분 21세기에 조사된 설화에 〈장자못과 어금니바위〉, 〈소금기둥이 된 머느리〉, 〈아기장수와 돌로 변한 용마〉, 〈양평 장수바위 전설〉 등 석화 모티프의 설화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설화들은 이 책의 첫 자리에 ‘광포 전설’로서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는 대표적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는데, 광포 설화인 석화 모티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이 시의 보편성 획득에 더욱 기여하게 된 것이다.

‘미래엔 교과서’의 지도서에서는 망부석 설화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상위에 석화(石化) 설화가 있고, 그 하위에 속하는 것 중 하나가 망부석 설화이다. 또한 망부(亡夫) 설화가 많지만 망부(亡婦) 설화⁹⁾도 있고, 망부(亡父)

8) 김윤식(1977: 147-148)에서는 〈옛 님을 따라가다 꿈 깨어 탄식함이라〉를 〈초혼〉의 전작으로 보았지만, 신범순(2007: 256-259)에서는 전작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텍스트라고 하였다.

9) 안면도 꽃지의 〈할미 할아버 바위〉를 들 수 있다.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환상을 보고 바다로 달려가다가 돌이 되고, 이후 살아 돌아온 할아버지가 이것을 알

설화¹⁰⁾도 있다. 따라서 죽은 이가 누구인가는 선명하지 않고, 지금도 채록되는 바, 인간이 돌이 되는 이야기들의 유사성에 기반에 석화 설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라는 한 구절은 비단 망부석 설화만이 아니라 석화(石化) 설화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초혼>이라는 시가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바인 이 석화 설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해서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석화(石化) 설화에 기반한 <초혼>의 해석과 교수학습에의 적용

석화(石化) 모티프는 이별한 대상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망부석 설화>와 이별하면서 금기를 위반하여 돌이 되는 <장자못 설화>가 대표적 사례로, 전자는 이별로 인한 충격이나 죄책감으로 돌이 되는 유형으로, 후자는 이별하는 대상과의 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돌이 되는 금기 위반형으로 나눌 수 있다(김지혜, 2021: 224-225; 전금화, 2017: 51). 어떻게 나누든 이별의 상황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대상과 분리되지 않은 마음 상태라는 점은 유사하다.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상과 차마 분리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은 금기의 위반 결과이든 자유의지이든 차라리 감정이 없는 무생물인 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임을 보여준다.¹¹⁾

고 바다로 들어가 돌이 된다 김지혜(2021: 232-233).

- 10) 대표적 사례로 <갯바위 설화>를 들 수 있다. 옛날에 소금을 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일하였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다. 아버지를 끝까지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아버지를 양지바른 땅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만 관을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들은 한탄하며 갯을 쓰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다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 아버지 바위와 아들 바위가 생겼다고 한다.

(<http://www.k-heritage.tv/brd/board/256/L/CATEGORY/615/menu/254?brd-Type=R&thisPage=1&bbIdx=4955&searchField=&searchText=> 참고.)

- 11) <망부석 설화> 유형만이 이별이 힘든 것은 아니다. <장자못 설화>에서 며느리가 뒤를 돌

그만큼 대상과의 이별은 극복하기 어렵고, 이는 누구도 쉽게 이해하거나 대신해주기 어려운 고독한 상태이다. <초혼>에서도 ‘찌러져 나가안즌 山’은 고독한 상태를 보여준다. 게다가 이 시는 시집 『진달래꽃』에서 ‘孤獨’이라는 소재목에 실려 있다.¹²⁾ 대상과 헤어진 화자만 고독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도 현재 화자와 헤어져 혼자 죽음의 세계에 고독하게 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화 설화나 <초혼>에서는 돌이 되겠다고 하였다.

‘선 채로 돌이 되어도’에서 ‘선채’는 앉거나 누워서 쉬지 못하는 상태이고, 종료된 행동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행동이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선 채로 돌이 된다는 것은 죽은 이를 잘 보내고 쉬겠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 죽은 이도 고독하게 있고 화자도 쉴 수 없으니 쉬지 않고 선 채로 대상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죽은 이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화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랑하든 그 사람’이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던 그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을 화자도 인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죽은 이를 서서 기다리면서 돌이 되겠다고 하니, 이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다.

돌로 고정된다는 것은 대상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죽은 이를 고독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죽은 이를 언제까지나 기다리기 위해 선 채로 돌이 되겠다는 마음의 표현, 죽은 이를 잊지 않고, 슬픈 이 상태를 영원

아보는 것, 성경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 등도 모두 인간이 이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굳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준 것도 인간은 머물던 터전, 사랑하던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악한 시택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머느리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게 좋으면 사랑하고, 악인이면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은 단순하고 낮은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악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는 신의 사랑까지 고려하면 인간에게 사랑이 의미하는 정의는 더 넓고 깊다. 이렇게 사랑을 이해할 때에 김소월의 시가 말하는 바도 연인 간의 낭만적 사랑, 유익만 주는 이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2) ‘孤獨’에는 <悅樂> <무덤>, <비난수하는맘>, <찬저녁>, <招魂>의 5편이 실려 있다(권영민, 2007).

하게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이 시는 말하고 있다.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시는 특히 그러하다. 이성이나 과학의 힘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문학이자 시의 영역이다. AI 로봇이나 디지털 과학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 역시 인간의 무한한 상상의 산물이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마음과 상상의 세계를 주된 영역으로 하는 문학을 축자적 의미나 이성적 판단으로 읽어갈 때에 사태 판단은 흐려지고 세계에 대해 어긋난 오해를 하게 된다.

〈초혼〉은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상상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사람이 어떻게 돌이 되겠는가.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상력이 원동력이 되어 인간은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돌처럼 굳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미라가 발견되기도 한다. 보낸 이의 외로움만이 아니라 죽은 이의 외로움까지도 고려해 무덤을 곁에 두고 무덤 속에 많은 것들을 함께 넣어두기도 한다. 죽은 이를 기억하고 혼자 두지 않고자 무덤 위에 돌을 세워두는 고인돌 문화도 전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때에 더 과학적으로 발달된 세계를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기반을 얻게 된다.

석화 설화는 증거물인 돌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설이다. 전설의 비극성은 증거물로 인해 두고 두고 기억된다. 돌은 극심한 슬픔을 고정된 상태로 만들어 그대로 기억하게 해준다. 죽은 이를 고독하게 죽음의 세계에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돌이 되어 고정됨으로써 영원히 죽은 이를 기억한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또 돌이 된 나를 보는 이마다 죽은 이를 기억하고 상기하게 한다. ‘부르는 소리는 빗겨가지만’, 또 그 이름은 ‘산산히 부서’지지만 돌은 반영구적이다. 돌이라는 증거물이 있는 한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인구에 회자될 수 있다. 따라서 죽은 이도 외롭지 않고, 님을 떠나 혼자 남은 나도 외롭지 않게 된다. 석화 모티프를 가진 전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제가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석화 설화는 죽은 이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

하는 역할을 한다. 극심한 슬픔을 겪은 이의 외로움, 홀로 먼저 간 외로운 이, 이들의 비극적 마음과 상황을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함으로써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石化(석화) 모티프인 것이다. 〈초혼〉은 돌이 된다는 설화를 수용함으로써 인간 삶의 고독과 극한 슬픔을 모두가 공유하고 위로자가 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왜 보편적 정서를 공유하며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돌이 된다는 설화의 수용은 이 시에서 단순한 전통의 수용이 아니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초혼 의식은 망자가 죽은 뒤 장례 절차의 하나로 일회적이지만 돌로 남은 이야기는 지속된다. 호명 의식은 중요하지만 그 이름은 산산히 부서질 수 있는 반면에 돌로 남겨진 이야기는 기억에 새길 수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죽음이나 코로나로 인한 죽음 등 개인적 죽음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죽음이라는 상황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기억’함으로써 떠난 이가 외롭지 않게, 또 떠나 보내고 남은 이도 외롭지 않게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초혼〉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코로나나 여러 재난, 전쟁, 사건, 사고 등으로 죽은 이들이 우리 곁을 둘러쌀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를 기억하고, 함께 위로하는 법을 〈초혼〉은 가르쳐준다.

IV. 접동새 설화와 〈접동새〉— 함께 슬퍼하고 오래 기억하기

1. 『문학』 교과서에서의 〈접동새〉 검토

김소월의 시 〈접동새〉는 설화에 기반해 시를 창작한 대표적 작품으로, 앞에서 살펴본 두 작품에 비해 설화와와의 관련성이 가장 뚜렷하게 인식되어 왔다.

숙모 계획영은 “소월은 장성하여 집동새라는 시를 읊었는데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 받았던 소감을 훗날에 기억했다가 쓴 것(계획영, 1969: 67)”이라 하였다. <집동새>를 본문 제재로 수록한 ‘해냄’ 『문학』 교과서(138쪽)에서도 배경설화를 소개하며 활동하는 문항이 있고, ‘감상 더하기’라는 대목에서는 ‘설화와 현대시의 만남’에 대해 여러 시인들의 사례들을 추가해 한국문학의 연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해당 단원의 학습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문학』 교과서(해냄에듀)에 나타난 김소월의 시 <집동새>의 학습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작품의 시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이 되는 시어를 찾아보자. (2) 이 작품에서 집동새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시어를 찾아보자. 그리고 시어들의 배치가 낡는 효과를 말해 보자. (3) ‘누나’가 겪었던 일과 관련지어 ‘집동새’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자. 2. 이 작품의 화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작품의 화자가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을 찾아보자. (3) 화자가 4연에 와서 ‘누나’를 ‘우리 누나’로 바꿔 부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 3. 다음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된 설화이다. 이를 읽고 활동을 해 보자. 	<p>평안북도 박천의 진두강가에 한 소녀가 부모와 아홉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곧 재혼을 하였는데, 계모는 심성이 매우 포악하여 아이들을 학대하고 구박하였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이웃 부잣집 도령과 혼약을 맺게 되었고, 도령에게서 많은 예물을 받았다. 계모는 이를 시샘하여 소녀를 장롱에 가두고 불을 질러 죽였다. 동생들이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자 소녀의 죽은 혼은 잣더미에서 집동새가 되어 날아올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관가에서는 계모를 잡아 불태워 죽였다. 계모의 죽은 혼은 까마귀가 되었고, 집동새는 까마귀가 두려워 남들 다 자는 밤에만 나타나 아홉 동생들을 걱정하며 슬프게 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동새>에서 설화를 형상화한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집동새>와 이 설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를 말해 보자. (2)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설화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생활 양식 등이 담겨 있다. 현대 문학 작품이 이러한 설화를 수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 보자. 4. 다음을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설명해 보자. 	<p>1920년대 한국 시단에서는 민요조의 서정시를 통해 한국 현대시의 시적 형식을 정착시키고 민족적 정서를 시적으로 표현할 방향을 마련했다. 이 시기에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던 김소월은 한국 시의 전통적 울조를 자유롭게 구사하였고, 향토적인 소재를 수용하여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를 표출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울조 : - 향토적인 소재 : - 민족의 보편적 정서 :

‘해냄 교과서’는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성취기준으로 하여 이를 다루는 대표작으로 <접동새>를 선택한 만큼 형식과 소재, 정서 등을 모두 전통과 관련된 것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가 집약되는 곳이 특히 활동 3번과 4번이다. 4번에서 말하는 전통적 울조는 3음보, 7.5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향토적 소재는 구비문학인 접동새 설화, 그리고 보편적 정서는 한(恨)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감상 더하기’란에서 ‘<접동새>에 담긴 한(恨)의 정서’라는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통적 울조는 3음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7.5조를 일본 시가의 이식으로 보지 않고 한국의 전통적 울조라는 것을 밝히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20년대가 왜 한이라는 정서가 보편적인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식민지라는 정보를 교과서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해명이 필요하다. 식민지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통적 정서는 왜 한(恨)이 되어야 하는가 역시 의문이다. 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는 흥(興)이 아니고 한(恨)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 성찰이 요구된다. 한(恨)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이자 전통이라고 보는 것은 일본인 학자의 이식된 세계관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어떤 집의 누나의 이야기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 누나’로 보편적 상황으로 확장한 2번 활동은 의의가 크지만, 덕분에 한(恨)이 민족 고유의 보편적 정서가 되는 것은 그 타당성 검토가 요구된다.

2. 접동새 설화에 기반한 <접동새>의 해석과 교수학습에의 적용

총 5연으로 이루어진 <접동새>는 제3연까지 걸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앞마을’라는 시·공간적 배경, ‘아홉 남동생’, ‘누나’, ‘의붓어미’라는 등장인물, 시샘에 죽었다는 사건이 모두 제시된다. 접동새 설화의 요약적 전달, 곧 접동새 설화의 시화(詩化)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사해서 ‘해냄 교과서’에서도 설화와 시를 직접 연관지어 창작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가 처음부터 현재의 모습인 것은 아니다. 김소월의 배재고

보 시절에 교지 『培栽』 제2호(1923.3.)에 실렸던 당시의 제목은 <접동>이었다. 이후 <접동새>로 바꾸어 표현도 상당히 개작하여 『진달래꽃』(1925)에 수록하였다(권영민, 2007: 301-302). 개작 전후의 작품을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다. 진한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변화가 확인한 대목이다.

김소월, <접동>	김소월, <접동새>
접동	접동
접동	접동
아우래비접동	아우래비 접동
津頭江가름가에살든누나는 津頭江압마일에 와서웁니다.	津頭江가람가에살든누나는 津頭江압마일에 와서웁니다.
옛날우리나라 먼뒹쪽의 津頭江가름가에살든누나는 이붓어미식새웁에죽엇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뒹쪽의 津頭江가람가에 살든누나는 이붓어미식새웁에죽엇습니다
누나라고 불너보라 오오 불설워 식새웁에몸이죽은우리누나는 글세요죽어접동되엿세요.	누나라고 불너보라 오오 불설워 식새웁에 몸이죽은 우리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엿습니다
아웁이나되던오래똥동생도 죽엇스니니즈라, 못니저서, 해지기를기다려, 밤을기다려 아우래비접동을부르며웁니다.	아웁이나 남아되든 오래똥동생을 죽어서도 못니저 참아못니저 夜三更 남다자는 밤이깁프면 이썬 저썬 올라가며 슬피웁니다

총 5연 중에서 제3연까지는 차이가 없고, 제4연 후반부와 제5연이 많이 달라졌다. 제3연까지는 의붓어미의 시샘에 누나가 죽었다는 설화로 이야기를 그쳐 전달하는 것이라면, 제4연부터는 시인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개작 전후의 차이가 큰 부분도 제4연부터이다. 두 작품의 변화를 비교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4연의 ‘글세요’라는 망설임 부분이 빠진 것, 그리고 제5연의 슬퍼하는 주체가 ‘아홉 동생들’에서 ‘누나’로 바뀌고 슬프다는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제4연의 차이와 관련해 생각해보자. 설화에서는 죽은 누이가 접동새가 되었다는 데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다. 그런데 왜 <접동>(1923)에서 시인은 ‘글세요’라고 망설였을까. 교과서에서 제시한 설화 부분을 잘 보면 누나의 혼이 접동새가 된 것은 동생들이 너무 슬퍼해서였다. ‘글세요’라는 머뭇거림의 시간, 판단을 확실하기 내리기 전의 시간은 아홉 남동생들의 슬퍼하는 시간을 상기시킨다. 아홉이나 되는 동생들은 억울한 누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슬픔의 시간이 누나를 접동새가 되게 하였다. 누군가의 간절한 슬픔이 동기가 되어서 누나가 새가 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졌다. 아홉 남동생들의 슬픔의 시간은 누나의 죽음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고 사후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이런 점에서 ‘글세요’는 이를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시인은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한 것이다. 그래서 <접동>(1923)에서 슬퍼하는 주체는 아홉 동생들이다.

Ⅱ장과 Ⅲ장에서도 본 것처럼, 김소월은 누군가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지는 않는다. 작은 새나 선 채로 돌이 된 자와 같이 죽은 이의 곁을 지키고, 죽은 이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살아있는 자에 대해 다루었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인이 ‘글세요’로 유보의 시간을 가지게 한 것은 누나의 죽음이 일상적인 일로,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어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그 억울함은 어디에서 해소할 것인가. 억울한 이의 죽음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글세요’는 상기시킨다. 〈산유화〉에서 향량의 슬픔과 죽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듯이, 누나의 죽음은 옛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만 그저 무수한 사건의 하나로 잊혀지지 않게 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 김소월은 설화의 이러한 목소리를 포착하여 ‘글세요’라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이 머뭇거림의 시간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다. 억울한 누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의 슬픔에 접동새가 되었다는 것이다.

계모 구박형 설화나 소설은 고전에 매우 많은데, 이는 실제 삶에서 이러한 일이 많다는 것을 문학이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상인 것처럼 그저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화도, 이 시도 말하고 있다. 제3연까지의 이야기, 곧 누나가 계모의 시샘에 죽었다고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억울한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설화를 통해, 또 시를 통해 새로운 상상력이 더해져 접동새가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제5연에서 아홉 동생들이 밤마다 슬퍼하는 것은 앞에서 본 〈산유화〉나 〈초혼〉과 같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외롭게 두지 않고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개작 후 〈접동새〉(1925)에서는 죽은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아홉 동생들을 기억하며 슬퍼한다고 하였다. 개작 전에 비해 개작 후에는 접동새가 된 누나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였다. 동생들의 슬픔으로 누나의 혼은 접동새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저기 이러한 자신의 죽음과 슬픔을 알리고 다닌다. 계모 구박형 이야기가 고전에 산재하듯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이 산 저 산에 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 잊혀질 수도 있고, 먼 뒤쪽에 있던 일이니 구석진 곳의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나의 죽음을 잊지 않고 슬퍼한 동생들 덕분에 누나는 새가 되어 직접 이 억울함과 슬픔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옛날이 아니라 ‘슬피웁니다’는 현재의 일로 지속될 수 있었으며, 구석진 곳의 일이 ‘이 산 저 산’ 어디에든 전하게 된 것이다.

전통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표면적 사실보다, 이 시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과거의 인간사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억울한 죽음의 문제, 계모 구박의 문제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도 아니고, 식민지의 문제만도 아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을 것같은 뒤쪽의 일도 인간의 악행은 감추어져서는 안되고 어디에서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에 대해 잊지 않고 슬퍼하는 산 자들 덕분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눈뜨게 한다. 문학은 법의 집행자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설화를 통해 이름 모를 보통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누나가 접동새가 되는 상상력을 발휘해 전한 것처럼, 김소월이 <접동새>를 통해 전한 것처럼 말이다.

고전문학이 사장되지 않고 왜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도 잘 보여준다. 고전은 왜 고전인가. 살아있는 자들, 입이 있는 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해야 할 말들을 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설화들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출간된 《구비전설 선집》(신동훈, 2021)을 보면 21세기에 채록한 접동새 설화도 실려 있다. 이 설화들이 현재도 유효하며 향유층에게는 현재적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타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자살을 택하는 것, 이별의 극한 상황, 정신적 시달림과 타살 등은 모두 억울함, 한스러움, 슬픔 등의 비극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다. 이런 비극이 인간사에서 해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 설화들은 향유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의 보편적 정서가 한(恨)이라는 습관적이고 틀에 박힌 전통성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간사의 애환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문학의 소명임을 가르쳐준다. 시대나 민족이나 특정 지역에 갇히지 않는, 문학이 가진 영속적이고도 고유한 속성에 대해서 말해준다.

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주로 실리는 김소월의 시 중에서 설화와 관련이 깊은 〈산유화〉, 〈초혼〉, 〈접동새〉를 중심으로 인문학으로서의 문학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전문학을 수용한 현대시라는 점에서 오래 지속되어온 인간 정체성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보고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文學)은 천문(天文), 지문(地文)과 대등하게 놓이는 인문(人文)을 대표할 수 있는 영역임을 김소월의 시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산유화〉에서는 향량 설화와 관련해 살펴봄으로써 수세기동안 이어진 한시 수용사에 기반해 형식의 전통성과 내용의 전통성이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근대인의 고독과 절망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가 인간임을 살펴보았다.

〈초혼〉에서는 석화 설화를 수용한 것이 이 시의 핵심적 사상과 주제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비단 민족의 전통이나 보편적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죽은 이를 기억하고 함께 영원히 있으려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본질은 어떠한가를 배울 수 있고, 이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으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접동새〉는 그간 접동새 설화와 관련해 민족 보편의 정서를 한(恨)으로 한정해 왔으나 이보다 더 본질적으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자 문학의 사명임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과 죽음을 허다한 습관적 사건으로 대하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 오래 기억해야 할 것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석진 곳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악행은 사장되어서는 안되고,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와 시로 현재도 말해져야 하는 것임을 보았다.

김소월의 시가 민요이든 설화이든, 그것이 운문이든 산문이든, 그것이 전통의 율격을 이었던 특정 설화를 수용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김소월의 시는 이름모를 무명의 무수한 이들, 이 땅을 살아간 이들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현재도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한 답을 가르쳐준다.

김소월이 살았던 시대에도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치열했다. 한문에서 한글로, 고급문학에서 대중문학으로, 문학이 근대화되는 시대에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규명이 요청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 역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되는 시대이다. 문학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위기가 지 언급되는 시대이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 설화이든 현대시이든, 구비문학이든 기록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모두 문학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학의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문학이 21세기에 소용없는 존재여서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문제는 문학의 본질을 읽어주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작은 새나 적은 무리(소수자), 아홉 동생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며 이름을 불러주는 보통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

김소월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름모를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한 이야기인 설화를 시에 담아 문학의 역할을 다 하게 하였다. 우리도 그의 시를 읽으며 작은 새, 죽은 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손아래 동생들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혹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자, 큰 형이 아니라 동생들 중 하나, 내 이름을 알리려는 자가 아니라 죽고 사라져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이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학은 항상 이러한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학의 본질적 역할에 주목할 때에 인간 본연의 가치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

이다. 코로나와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불가항력적 사건과 사고 앞에서, 또 AI 로봇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 앞에서, 강한 자와 유명한 자의 횡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제 몫을 다하며 서 있게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2.07.30. 투고되었으며, 2022.08.07. 심사가 시작되어 2022.09.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교과서 및 지도서

- 방민호·박현수·황재문·정우상·조성임·윤나라(2019), 『고등학교 문학』, 서울: 미래엔.
방민호·박현수·황재문·정우상·조성임·윤나라(2020),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서울: 미래엔.
정호웅·김수학·송지언·우완·윤대석·정지민(2019), 『고등학교 문학』, 서울: 천재교육.
조정래·정호승·곽재구·박상률·유문선·노철·강성도·공정배·김근성·김민혁·김형태·문성후·박길제·박병욱·박성일·박안수·오창렬·이남희·임희중·정의창·정홍윤·조은희·지범식·진기춘·차지혜·최홍일·황은주(2019), 『고등학교 문학』, 서울: 해냄에듀.
최원식·박종호·곽기영·박수연·박창현·서경원·송미경·오연경·이삼남·이종은·이종호·전현철·정지영(2019), 『고등학교 문학』, 서울: 창비.

논저

- 계회영(1969), 『내가 기른 素月』, 서울: 장문각.
고정희(2015), 「고전문학의 지속가능성과 고전문학 교육」, 『한국한문학연구』 57, 131-162.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권영민(1999), 「김소월의 산유화 -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의 경우」, 『새국어생활』 9(4), 137-142.
권영민(2007), 『김소월시전집』, 서울: 문학사상.
김대행(1983), 「김소월과 전통의 문제」, 김용직(편), 『한국현대시연구』, 서울: 일지사.
김용직(1974), 『한국문학의 비평적 성찰』, 서울: 민음사.
김윤식(1977), 「혼과 형식」, 신동욱(편), 『김소월』,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종철(2018), 「과학·기술 주도 시대의 고전문학교육」, 『문학교육학』 59, 9-29.
김지혜(2021), 「석화(石化) 모티프 등장 설화를 통해 본 상실과 애도의 층위」, 『문학치료연구』 59, 223-251.
김훈(2022), 『저만치 혼자서』, 파주: 문학동네.
노철(2019), 「김소월 시의 창작방법 - 민요 활용과 삶의 민요화」, 『국제어문』 81, 139-181.
서신혜(2004), 『열녀 향량을 말하다』, 서울: 보고사.
신동훈(2021), 『구비전설 선집』, 파주: 문학동네.
신범순(2007), 「김소월 시의 여성주의적 이상향과 민요시적 성과(1)」, 『관악어문연구』 32, 245-273.
오성호(2006), 『서정시의 이론』, 서울: 실천문학사.
유종국(1996), 「山有花의 설화적 배경 연구」, 『국어문학』 31, 국어문학회, 353-368.
윤여탁(2022. 07. 23.), 「문학교육-융복합의 여러 얼굴」, 『한국문학교육학회 제90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동순(2007), 「김소월 시의 전통시가 변용 양상」, 『현대문학이론연구』 31, 117-140.
- 이승원(2019), 『교과서 시 정본 해설』, 서울: 휴먼앤북스.
- 전금화(2017), 「동아시아 신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 둘 신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소연(2017), 「김소월의 한시 국역 양상과 그 문학사적 의미 연구」, 『국어국문학』 178, 137-178.
- 정한기(2009), 「민요 〈산유화〉의 통시적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17, 217-254.
- 정효구(1988), 「〈산유화〉의 기호론적 구조분석」, 최현무(편) 『한국문학과 기호학』, 서울: 문학과 비평사.
- 조지훈(1996), 『조지훈전집 8』, 서울: 나남.
- 진가연(2021),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산유화〉」, 윤여탁·최미숙·최지현·유영희·김정우·남민우·김남희·정정순·구영산·김미혜·오지혜·손예희·민재원·강민규·이종원·이상아·진가연(저), 『문학교육을 위한 현대시작품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최미숙(2010), 「문학 독서 교육에서 비평의 역할과 의미 - 김소월의 「산유화」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4, 111-140.
- 하재연(2016), 「설화 문학의 환생 모티프와 문학적 전통의 재창조 - 한국 현대시의 변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3, 293-332.
- 한계전(2008), 『한계전의 명시 읽기』, 파주: 문학동네.

김소월의 설화 관련 시를 통해 본 인문학으로서의 문학교육 탐색

— 〈산유화〉, 〈초혼〉, 〈접동새〉를 중심으로

정소연 · 박지원 · 황예진 · 이한나

본고는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사회와 코로나라는 전염병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본질에 초점을 둔 문학교육에 대해 탐색한 것이다. 인문학으로서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문학의 성격에 주목하여 김소월의 시 중 『문학』 교과서에 주로 실리면서도 오랜 인간 문제를 다룬 설화와 관련한 시 세 편을 재해석하였다.

〈산유화〉의 경우, 향랑 설화에서 향랑이 부른 〈산유화〉를 수용해 재창작한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문인들의 한시 수용사에 기반하여 김소월의 〈산유화〉를 재해석하였다. 4연 구성에서 제3연이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의 전구(轉句)의 역할을 하며 시상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점, 이 작은 새의 존재가 향랑 설화에서 나물캐는 소녀의 역할과 같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고독한 인간 존재의 이웃으로서, 평범하지만 적은 무리인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 기억하고 전해주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시로 해석하였다.

〈초혼〉의 경우, 이 시의 보편성 획득에는 석화(石化) 설화의 수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별의 고통과 죽은 이의 고통 앞에서 돌이 되어 비극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상상력과 의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의 영역이 가지는 문학의 속성이 인간 문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본질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시로 보았다.

〈접동새〉의 경우,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기지 않고 슬퍼하며 죽은 이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며 문학의 역할임을 보았다. 또한 시에 나타난 슬픔을 민족 고유의 한(恨)으로 한정하기보다 더 큰 보편성의 관점에서, 현재적 이야기로서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습관적으로 말해지는 ‘김소월 시의 전통성’은 단순한 형식의 유사성이나 설화의 수용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 설화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유기적으로 해명하고, 형식과 내용의 긴밀성에 기반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작고, 적고, 어리고, 이름없는 보통의 사람으로서 전쟁과 전염병, 억울한 사건과 사고, 인공지능과 기계 중심 사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음을 보았다.

핵심어 김소월, 인문학, 문학교육, 설화, 산유화, 초혼, 접동새, 향량, 석화(石化), 망부석, 인공지능(AI), 인본주의, 포스트 휴머니즘

A Study on Literature Education as a Humanities Subject through Kim So-wol's Poems Relating to Folk Tales

— Focusing on 〈SanYuHwa〉, 〈ChoHon〉, 〈JeopDongSae〉

Chung Soyeon · Park Jiwon · Hwang Yejin · Yi Hanna

This article explores the role of literature education regarding human dignity and essence in an era of unprecedented infectious diseases in a digital society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the nature of literature that explores the nature of humanity as a humanities subject, I reinterpreted Kim So-wol's three poems, which were mainly published in "Literature" textbooks and are related to folk tales dealing with long-standing human problems.

In the case of 〈SanYuHwa〉, Kim So-wol's 〈SanYuHwa〉 was reinterpreted based on the history of literary expropriation from the 17th to the 20th centuries, which was re-created by accepting the folk song 〈SanYuHwa〉 sung by Hyang-rang in the Hyang-rang folk tale. In the four stanzas, it was noted that the third stanza serves as a precursor to the structure of four-line hansu (Chinese classical poetry, Jeol-gu) and brings important changes to the image.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this small bird is the same as the role of a girl in the Hyangrang folk tale, and through this, 〈SanYuHwa〉 is interpreted as a poem that tells us that we remember and pass their stories on to the dead.

In the case of 〈ChoH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acceptance of Becoming a Stone folk ta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quiring the universality of this poem, and the human imagination and willingness to overcome tragedy by becoming a stone in front of the pain of parting and the solitude of the dead are examined. Through this, it is deemed that it is a poem showing the nature of human minds and thoughts, and that the

attributes of literature in other areas of emotion and reason become the driving force of human civilization.

In the case of 〈JeopDongSae〉, we saw that it was our job and the role of literature to remember and convey the dead in sorrow without merely passing through the unjust death. Moreover, the need to approach the sadness in the poem from the perspective of greater universality than from the perspective of limiting it to the unique Han (恨) of Korean peopl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human society as a present story was suggested.

Through this, the tradition of Kim So-wol's poems, which are habitually told, have a literary history meaning based on the closeness of form and content by organically explaining how folk tales play an important role regarding content, rather than the acceptance of simple form or similarity between narratives. Additionally, we could learn how to live today without fear as small, young, and unnamed ordinary persons in the face of war and plague, unfair events and accidents, and in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centered society.

KEYWORDS Kim So-wol, Humanities, Literature Education, Folk Tales, SanYuHwa, ChoHon, JeopDongSae, Hyangrang, Becoming a Stone,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sm, Post Humanism